

# 중세 후기 영국의 언어 - 영어 중심적 담론 속의 프랑스어\*

강 지 수

단독 / 인하대학교

## [국문 초록]

최근 중세 영국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동향 중 하나가 다중언어 현상에 대한 집중적인 조망이다. 다중언어는 중세 전반에 걸쳐 영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역사적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그동안 이 중요한 현실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부족했고, 그런 현실이 요구하는 적절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다각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 20세기에 집필된 다수의 영어사에서 중세 영국의 언어에 대한 서사가 편향적이고 이념적이라는 지적이 중세 문학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중세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권 안팎에서 영어를 포함해 모든 언어들이 다른 언어와 접촉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중언어 현실에 대해 지극히 영어 중심의 단일언어적인 시각에서 영어사가 서술된 것이다. 본 논문은 중세 후기 다중언어 현실에 대한 그간의 통념을 비판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 최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부에서는 많은 영어사 저술에서 언급되는 영어 부상의 사례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선정해 이에 대해 다중언어적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한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이 연구들은 영어부상의 서사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프랑스어 최

---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퇴 담론을 떠받치고 있는 양상과 다중언어가 중세 문화 연구의 핵심어가 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후반부에서는 최근 중세 영국의 다중언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앵글로노르만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주제어:** 중세 영국의 다중언어, 영국성, 중세 영국의 프랑스어, 영어의 부상, 영어의 승리 담론

## 1. 중세 후기 영국의 다중언어

지난 사반세기 동안 중세 영국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동향 중 하나가 다중언어 현상에 대한 집중적인 조망이다.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프랑스어가 라틴어와 더불어 위세 언어(*prestige language*)로 등극하면서 영국은 일상어(*vernacular*)였던 영어와 함께 삼중언어 사용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sup>1)</sup> 그러나 영국의 언어 경관을 다중언어 사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게 만든 상황은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고, 사용된 언어도 다양했다. 1세기부터 400여 년간 이어진 로마의 지배, 5세기의 게르만 민족의 이주, 8세기 말부터 시작된 바이킹의 침략과 정주에서 알 수 있듯이 노르만 정복 이전에도 영국에 정착한 집단은 하나같이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왔다. 이들 정복자 및 이주민에 의해 유입된 라틴어, 게르만어, 스칸디나비아어, 프랑스어에 원주민의 언어였던 켈트어까지 고려하면 중세 영국의 언어는 늘 복수였고 많은 개인들이 복수의 언어를 사용했다. 중세 영국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찍부터 이곳을 다중언어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노르만 정복 이후 영국의 언어 사용 영역 분포를 보면 대체로 프랑스어는 궁정과 법정에서, 라틴어는 교회에서, 영어는 피지배계층 원주민의 구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각각의 언어가 엄격한 패턴을 따라 선택되지 않았고,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코드전환 등의 언어혼합 현상이 일어나며,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사례를 많은 기록이 증언한다. 13세기에서

14세기 초반까지 다수의 라틴어와 프랑스어 텍스트가 영국에서 집필되었고 상당한 분량의 삼중언어 수서본이 제작되었다(Crane, “Anglo-Norman” 49; Turville-Petre, *England 181-221*). 다중언어는 중세 전반에 걸쳐 영국을 정의하는 중요한 역사적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그동안 이 중요한 현실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부족했고, 그런 현실이 요구하는 적절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다각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 20세기에 집필된 다수의 영어사에서 중세 영국의 언어에 대한 서사가 편향적이고 이념적이라는 지적이 중세 문학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중세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권 안팎에서 영어를 포함해 모든 언어들이 다른 언어와 접촉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중언어 현실에 대해 지극히 영어 중심의 단일언어적인 시각에서 영어사가 서술된 것이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붓물 터지듯 쏟아진 중세 영국의 다중언어에 대한 연구 중 특별히 영어의 재부상으로 특징지어지는 중세 후기에 대한 연구 동향이다.<sup>2)</sup> 프랑스와 대적했던 백년전쟁의 시대이기도 하고 초서 시대로도 알려진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오랜 세월 주변부에 있던 영어가 프랑스어와 라틴어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정, 교육, 종교, 문학의 언어로까지 지위가 상승하고 기록된 글의 분량도 이전보다 현격히 증가해 영어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히는 시대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영어사를 지배해온 담론에 의하면 이것은 다른 언어들과의 투쟁에서 거둔 ‘영어의 승리’의 결과이고, 승리가 목적지로 결정된 궤도 위에서 일군 성과이다. 중세 어느 시대 못지않게 역동적인 다중언어 사회였던 중세 후기 영국의 언어 현실이 주로 영어의 승리로 규정된 것이야말로 그간의 영어사에 단일언어적 시각이 팽배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승리’는 1953년에 발표된 존스(Richard Jones)의 책 제목이자 1969년에 나온 카틀(Basil Cottle)의 책 제목의 앞 부분이다.<sup>3)</sup> 하지만 이 저술들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영어의 승리 담론은 이보다 훨씬 더 일찍 형성되었고 반복에 반복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상당한 권위를 축적한 서사로 널리 알려졌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11세

기 영국에서는 노르만족의 침략을 받아 앵글로 색슨시대가 종식되었다. 침략자의 언어인 프랑스어는 영국에서 사용되면서 영어를 영구히 프랑스어처럼 변질시켰다. 프랑스어는 지배계층의 언어로 승승장구하지만 결국은 14세기에 오면 세력이 약화된다. 영어는 분명히 부상하게 되고 결국 공적 기록이나 역사 서술, 그리고 고급 문학의 영역에서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대체하면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고 영국을 대표하는 민족 언어가 된다. 이 당시 영어로 집필된 연대기나 역사서의 등장은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국민적 감정을 표현하며 동시에 증폭시켰고, 초서로 대표되는 영어 문학이 이전까지의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지배력에 대항하며 다시 새롭게 깨어난 영국의 문화적 활력과 자부심을 보여준다. 이 서사는 주로 19세기에 등장하는 민족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영어를 통해 영국성을 정의하면서 공고히 되는데, 여기에는 국어에 대한 자부심,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적대감,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저항 등이 골고루 담겨 있어 매우 요긴하게 전유되었고 그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세의 다중언어 현실이 다중언어적 관점에서 연구되지 못한 데에는 이런 이념적 걸림돌이 있었다. 근대의 단일언어적 관점은 언어 단위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고정된 형태라고 전제하면서 특정 언어가 국가 및 문화 정체성과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sup>4)</sup> 이런 관점에서 복수의 언어가 병존하는 현실은 결국 그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자리를 쟁탈하려는 다툼의 현장이고 특정 언어의 승리와 상대 언어의 패배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대학에서 널리 사용된 영어발달사 교재의 한 대목을 보자.

1337년에 발발한 백년전쟁은 (...) 오랜 세월 이어진 갈등 속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속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영국에서 이미 빈사 상태에 있던 프랑스어 사용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노르만인 조상을 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영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Pyles and Algeo 136)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초서 시대의 영어 부상에 대한 담론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반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어의 쇠퇴인데 최근 연구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

각하게 제기된다. 중세 후기 영국의 중대한 역사 중 하나인 영어의 부상이 단일언어적 관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영어의 승리 담론 속에 목적론적으로 편입되면서 그간의 영어사가 다중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중세 영국 문화 연구에 다중언어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워건-브라운(Jocelyn Wogan-Browne)은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문화가 단일언어로 되어 근대 국가처럼 정해진 영토 내에서 시간을 따라 단선적으로 유기체처럼 진화한다는 생각은 중세 영국의 텍스트 생산이나 언어, 문화간 접촉을 고려하면 그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현재 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영국의 프랑스어, 영국의 영어, 그리고 영국의 라틴어가 어떻게 상호 간에, 그리고 그 외 언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복수의 언어와 텍스트의 존재만이 아니라 상호연관성까지 다루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ogan-Browne, "What's in a Name" 10-11)

중세 후기에도 3개의 언어, 즉 “영국의 프랑스어, 영국의 영어, 그리고 영국의 라틴어”가 모두 영국의 언어였고 그 사이에서 긴밀한 언어적,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전제된 관점으로 당시의 문화를 조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세 후기 다중언어 현실에 대한 그간의 통념을 비판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는 최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문에서는 많은 영어사 저술에서 언급되는 영어 부상의 사례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선정해 이에 대해 다중언어적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다. 이 연구들은 영어 부상의 서사가 프랑스어 쇠퇴 담론을 떠받치고 있는 양상과 다중언어가 중세 문화 연구의 핵심어가 된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sup>5)</sup> 아울러 최근 중세 영국의 다중언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앵글로노르만어’의 역사에 대한 연구 동향도 일부 살펴보겠다.

## 2. 영어의 부상과 프랑스어의 쇠퇴 - 결정적인 사례들?

영어가 다른 언어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국가의 언어로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대영제국의 팽창과 함께 전 세계로 퍼졌고 결국 글로벌 언어라는 위상까지 획득한다는 승리의 서사는 위에서 워간-브라운이 제시한 단일언어적 모델, 즉 문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언어와 함께 단선적으로 발달한다는 관점에 바탕을 둔다. 이런 전제에서 거론되는 중세 후기 영어의 부상은 많은 영어사 저술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몇 개의 대표적인 사례에 크게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어의 부상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구성된 이 사례들은 엄밀한 검증 없이 영어사 서술에서 반복 인용되면서 권위를 축적했다. 이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검토해도, 영국의 언어 생태계를 다중언어적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실제로는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진적인 변화를 갑작스럽고 단시간적인 사건으로 왜곡시켰다는 비판, 지역적인 변화에 대한 기술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켰다는 지적, 언어학적으로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 이념적 지지만으로 계승되었다는 의심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비판과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을 맞닥뜨리게 된다.

### 1) 1362년의 ‘법률논쟁에 관한 법령’

노르만 정복 이후 상당한 기간 영국의 법률 언어는 프랑스어였다. 법리 논쟁을 포함해 법정에서 구두로 하는 모든 활동이 프랑스어로 이루어졌고 기록은 주로 프랑스어와 일부 라틴어가 분담했다. 이런 프랑스어의 지배력에 변화가 생긴 것이 1362년에 반포된 ‘법률논쟁에 관한 법령’(The Statute of Pleading)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왕실과 귀족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의회의 입법 신청서에 의하면 영국에 프랑스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이 자주 있어 법률논쟁에서는 영어가, 기록문 작성에는 영어가 프랑스어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나라의 법규, 관례, 법령이 나라 안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다 이 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프랑스어로 변론과 기소 조항 설명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 왕이나 (...) 영토 내의 모든 신하들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송에서 변론, 기소 조항 설명, 변호, 답변, 논쟁, 판결할 때 다 영어로 해야 한다. (Ormrod 755-56, 재인용)

영어가 프랑스어를 제치고 공적 언어가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유명하며, 보우와 케이블(A.C. Baugh and Thomas Cable) 등의 언어학자뿐 아니라 영문학자들도 영어의 정치적 승리로 꼽은 이 사건은 동시에 영국에서 프랑스어가 쇠퇴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sup>6)</sup>

하지만 최근 역사학자 옴로드(Mark Ormrod)는 이 법령이 반포된 배경이 법률 전문 용어, 즉 법률 프랑스어에 익숙한 소수의 엘리트 법률 전문가를 견제하고 그들로부터 법의 통제권을 빼앗으려는 데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어만을 고집하거나 프랑스어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와는 무관한 법령이라는 것이다. 행간에 법률가들의 수완과 언어 사용 현실이 드러나는데, 우선 법률가들이 법령에 그들에게 유용한 출구조항을 심어 두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왕국의 법령과 관례, 조항과 절차는 현재와 같이,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준수한다”는 것이다(Ormrod 773, 재인용). 실제로는 1362년에 법령이 반포되고 200년이 지나서까지 누구든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알아야 했다는 것이 이것을 실제로 프랑스어의 정치적 패배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은 프랑스어로 하게 되어 있었다. “절차는 그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준수한다”는 조항을 따르기도 했거니와 전적으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률상의 관례가 대부분 프랑스어로 기록되어 있어 영어가 인수하기에는 어휘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말로 영어가 사용되었어도 바뀐 것은 부사, 관사, 접속사, 전치사. 대명사 등 기능적인 단어에 국한되었고 의미가 있는 법률 용어는 그대로 프랑스어였다(Rothwell, “English and French”; Ormrod 773-774). 언어 간 경계가 모호한 상태의 언어가 공적 영역에서 장기간 사용되었고, 기록 언어는 이 기간 내내 여전히 프랑스어였다. 오랜 세월 한 언어에 의해

독점되었던 기능이 장시간의 조정 기간 없이 다른 언어로 대체되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령은 다른 언어도 아닌 프랑스로 쓰여졌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국의 법률가였던 포테스큐(John Fortescue)가 15세기 후반에 남긴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영국인은 (...) [프랑스로] 변론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특정한 법령 때문에 그런 관행에 제약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관행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론자들이 특정한 용어는 영어보다는 프랑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영장 원본에 대한 설명을 영장에 쓰인 대로 하자면 원래 이런 글의 공식을 프랑스로 배우기 때문에 프랑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Fortescue 115)<sup>7)</sup>

프랑수가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퇴출된 것은 1731년이다(Tiersma 36).

## 2) 트레비자의 『폴리크로니콘』 번역본

14세기 영국의 언어지형에 대한 대표적인 진술 중 하나가 체스터의 수사 학든(Ranulf Higden)이 1320년에 라틴어로 쓴 보편사, 『폴리크로니콘』 (*Polychronicon*)이다. 이 글에 의하면 14세기 초에도 여전히 영국의 상류층은 프랑수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출세와 신분 상승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줄기차게 프랑수를 사용한다. 문법학교에서 라틴어 수업을 할 때도, 대학에서 학생이나 교수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프랑수가 사용되었다. 14세기 초에 프랑수는 여전히 말로나 글로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1385년에 나온 트레비자(John Trevisa)의 영어 번역본에 실린 해설을 보면 60여 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 그 사이인 에드워드 3세와 리처드 2세 재위기간에 영어는 엄청나게 성장해 기록과 문학의 언어로 채택되는데 프랑수와 경쟁하는 수준이 되었고 예전에 프랑수를 사용하던 대부분의 영역에서 영어가 프랑수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트레비자에 의하면 특히 교육 분야에서 영어의 약진이 두



드러지는데 점차 영어는 학교에서 수업 언어로 프랑스어를 대체했고, 따라서 자신이 글을 쓰는 당시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는 생소한 언어였다고 주장한다.

태생어의 이런 쇠퇴는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한 가지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관행이나 방식과는 달리 노르만족이 영국으로 처음 왔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귀한 집 자제는 요람에 누워있을 때부터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을 배우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프랑스어를 한다. 시골 사람들도 귀족과 비슷하게 보이고 출세하려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데에 큰 노력을 들인다. 이런 행태는 첫 번째 흑사병이 들기 전까지는 흔했는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법 선생인 존 콘월(John Conwaile)은 문법학교(grammar school)의 라틴어 교수법을 바꾸어 프랑스어 대신 영어로 가르쳤다. 리처드 펜크리치(Richard Pencriche)는 그에게서 교수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은 펜크리치에게서 배워 이제 주후 1385년, 노르만 정복 후 두 번째 리처드 왕 9년이 되어서는 영국의 문법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라틴어 문법을 배운다.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아이들이 예전보다 문법을 빨리 배운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문법학교의 아이들이 자기 왼쪽 발만큼도 프랑스어를 모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바다를 건너 외국에 갈 때나 다른 곳에 갈 때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귀족은 자식에게 프랑스어 가르치기를 거의 포기했다. (Babington and Lumby 2:159-161)

트레비자의 관찰은 역사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듯했다.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는 프랑스어가 사용되던 영역을 영어가 잠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이다. 14세기 전반부에 옥스포드에 설립된 세 개의 대학 규정에 의하면 대학 구성원들은 오직 라틴어나 프랑스어만 사용하게 하였다. 같은 14세기, 옥스포드 대학교 자체가 문법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립한 규정에 의하면 라틴어 어휘를 번역하거나 의미를 설명할 때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랑스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고, 이런 사례는 프랑스어가 빠른 속도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Orme 76).

하지만 최근 트레비자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우선 트레비자가 이 시기 영국 전역의 상황을 알고 쓴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상식적인 지적과 함께 특정한 지역, 즉 대학가인 옥스포드에 고유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 있다 (Machan 84). 그녀가 하면 프랑스어 학습이 광범위하게 라틴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캐논(Christopher Cannon)의 연구 역시 트레비자의 관찰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Cannon 650). 또한 그간 트레비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 역사적 사실 중 하나가 14세기 중반부터 프랑스어 학습 교재가 급증했다는 것인데 여기에도 최근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다. 1337년 에드워드 3세는 젠트리와 대도시의 상인들에게 자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이유를 당대 예노(Hainault) 출신으로 영국에서 거주하던 연대기 작가 프루아사르(Jean Froissart)는 이것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적을 아는데 유용하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Froissart 2: 419). 이를 놓고 근대 학자들은 대체로 일시적인 전시 전략으로 보았지만 버터필드(Ardis Butterfield)는 영국이 프랑스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프랑스어가 영국의 언어임을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19, 111-151). 프랑스어가 적대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국의 언어라는 인식이 전제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백년전쟁이 프랑스어 쇠퇴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 즉 이 전쟁으로 영국의 민족국가 의식이 고양되어 프랑스어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영어의 부상과 프랑스어의 쇠퇴의 기틀이 되었다는 해석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어 학습은 백년전쟁 중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종식된 1435년까지 굳건하게 생명력을 유지했고 1450년대까지도 개인간의 서신이나 약속 증서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Rothwell, “Anglo-French”). 당시에 인기 있었던 프랑스어 문학작품, 특히 아서 문학 사이클을 읽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이런 경향은 1470년대와 1480년대에 캐스톤(William Caxton)이 영어 번역본을 낼 때까지 계속되었다(Ailes and Putter 74).

### 3) 중세영문학의 언어와 초서의 일상어

초서(Geoffrey Chaucer)는 단연 14세기 영어 부상의 아이콘이다.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어 승리 담론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기도 한다. 많은 영어사 저술이 초서의 최고 업적을 영어를 부흥시켰다는 데에서 찾는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포함해 14세기의 제반 여건이 초서가 창작의 언어로 영어를 선택한 배경이 되었고, 또한 그의 영어 작품들이 영어의 부상을 더욱 촉진했다고 확언한다. 그렇기에 일찍부터 초서가 영어로 글을 쓴 것은 그의 영국성(Englishness), 민족적 자긍심, 국가 의식의 표현이었다고 여기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역사를 초월해 하나의 언어, 공간, 성향, 인종으로 존재하는 영국성 혹은 영국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초서와의 연관성 여부를 떠나 존재부터 유용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sup>8)</sup> 이에 대해 중세영문학계에서 작심하고 제기한 도전이 동일하게 21세기를 향해 앞두고 1999년에 발간된 두 권의 저술, 『일상어라는 개념 - 중세영어 문학 이론 선집 1280-1520』 (*The Idea of the Vernacular: An Anthology of Middle English Literary Theory 1280-1520*) 와 『케임브리지 중세영어문학사』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English Literature*)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저서는 중세 후기의 영어와 영어 텍스트를 근대 목적론적인 역사 서사에 편입시키지 않고 모두 다중언어 현실을 좀 더 진지하게 취급하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다중언어 연구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일상어라는 개념』은 영어가 단일한 영국성의 표현이 아니라 일상어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주로 14, 15세기에 쓰인 각종 장르의 중세영어 텍스트의 서문을 통해 탐색한다. 영어를 일상어로 재규정하고 영어의 부상을 일상어의 부상으로 재조명하려는 이 시도는 영어를 한층 더 밀접하게 라틴어 및 프랑스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이 선집에 수록된 수많은 서문들은 영어라는 언어와 영어로 쓰인 글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의식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특히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언어인 라틴어, 같은 일상어이면서도 영어와 다른 지위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프랑스어와의 관계 등 타언어와의 다이네믹 안에서 중세영어의 위

치를 협상하고 구성한다. 당대의 담론으로 중세영어 문학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라는 차원에서 근대의 목적론적인 서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중세영어 문학 이론"이라는 부제의 적합성도 확인된다.

31편의 개별 논문으로 구성된 『케임브리지 중세영어문학사』는 노르만 정복 이후의 영문학 역사인데 영문학사이면서도 중세 영국에서 사용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세밀하게 주목했다는 점에서 1907년에 나온 『케임브리지 영문학사』 시리즈와 분명하게 비교된다. 웨일즈어, 아일랜드어, 스코틀랜드어에서 프랑스어, 라틴어, 영어에 이르기까지 노르만 정복 이후 영국에서 말로나 글로 사용된 모든 언어에 대해 개별 장이나 적어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특히 중세 후기에 대한 논의에서 영어로 쓰인 문학에 집중하면서도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된 텍스트를 중요한 맥락으로 삼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영어로 집필된 것을 종종 "영어화하기"(*Englising*)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영문학이 종종 프랑스어나 라틴어 텍스트를 번역한 것이거나 대륙의 양식을 그대로 도입해 영어로 서술한 것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9)</sup> 이 저술에서는 단선으로 이어지는 전통이 아니라 당대의 담론을 기반으로 문학 텍스트를 주목하고 있어 핵심어로서 '영어화'가 '영국성'을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인 월레스(David Wallace)는 서문에서 목적론적이지 않은(non-teleological)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히면서 중세문학이 종국에 위대해지는 영문학의 시발점인 것처럼 소개된 과거의 서사를 해체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xiv). 개별 텍스트와 연관된 복합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복수의 관점을 제시하고, 특히 복수의 언어가 개입될 때 언어접촉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시도가 돋보인다. 패터슨(Lee Patterson)의 표현을 빌자면 흔히 문학사는 중세를 고전시대와 근대의 "중간에 낀 천년의 세월"(*millennium of middleness*, 92)로 보면서 주된 역할을 기원을 제공하는 데서 찾고, 융성기는 모두 르네상스와 그 이후에 오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시대의 서열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세학의 목표라고 패터슨이 1990년에 주창한 것에 대해 9년 뒤에 나온 본격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문학을 목적론적인 서술 프레임과 기원의 스토리로 규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더 폭넓고 장구한 영국의 다중언어 문학 이야기의 일부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일상어로서의 영어의 부상 역시 곧 영어의 영용화, 그리고 이내 또 다른 의미에서 영국성의 표현으로 이어진다. 우선 『케임브리지 중세영어문학사』에서부터 영어가 일상어로 제시되면서 곧 라틴어나 프랑스어의 권위에 저항하는 약자이자 반항아의 이미지로 부각된다. 수록된 논문 중 다수가 중세영어 텍스트를 정치적, 종교적 권력 구조에 대한 저항의 서사로 해석하면서 종종 텍스트의 언어 선택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일상어로서의 영어는 곧 윤리적 강자가 된 것이다(Stanbury 95-6). 그런가 하면 접근성의 확대,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데서 일상어와 일상어 텍스트의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근대 유럽이 추구한 민주주의 정신의 기원으로 손색이 없다. 일상어의 부상은 중세 후기 유럽 곳곳에서 목격된 현상인데 라틴어가 아닌 지역의 언어, 일상의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사실부터 그에 대한 다양한 자의식의 표현까지 두루 해당 집단의 감성과 정체성의 표식으로 여겨졌다.<sup>10)</sup> 14, 15세기에 영어로 쓰인 기록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영국의 민족적 감성과 소속감을 표현한 현상일 뿐 아니라 동시에 강화시켰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은 중요한 배경이다. 이미 결정된 ‘영어의 승리’의 신화가 아니라 일상어를 선택한 행위가 영국성의 형성과 영국이라는 국가 개념의 강화를 추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세 후기 영국의 ‘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가 일상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 역시 지나치게 국가 정체성의 지표로서의 역할과 수준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언어와 민족 혹은 국가 사이에 잠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직접적인 상관성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 라틴어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지적이 있었는데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간단히 살펴보겠다. 영어와 영국의 민족적 정체성 사이의 상관성을 당연시하는 태도에는 중세에 광범위하게 기록의 언어로 사용되었던 라틴어를 무시했다는 허점이 있음이 제기되었다. 이미 오래전에 갈브레이스(V. H. Galbraith)는 “민족성을 일상어로 작성된 문학과 동일시하고 라틴어 문화를 배제한다는 것은 중세 민족으

로서의 삶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20). 즉 민족적 감정의 최고 수위의 표현을 일상어에서만 찾는 것은 근대의 시각을 중세라는 과거에 대입시키는 것이며 라틴어 작가들과 텍스트가 영국의 국가 정체성의 형성과 표현에 기여한 절대적인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일상어 문화가 활기를 띠는 14, 15세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 라틴어 문헌은 영국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 러딕(Andrea Ruddick)의 말처럼 이런 방치가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시기의 라틴어 텍스트가 지식인과 성직 종사자들 중심으로 작성, 유포되었을지라도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결코 영어 텍스트들보다 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틴어가 위세와 실용성을 갖춘 언어로써 교회, 행정, 문학의 언어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은 라틴어 문화의 활기가 신양시와 연대기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에 두루 살아 있었다는 표증이다(Ruddick 46-47). 영어로 글을 쓰겠다는 의지가 잠재적으로는 소속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라틴어를 선택한 사람들이 영어를 배척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초서에 대한 연구는 특별히 흥미롭다. 그는 프랑스어와 라틴어에 다 능통했고 특히 프랑스어는 궁정의 중요한 외교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유창했다. 그런 그가 창작의 언어로 영어를 선택한 것을 그의 영국성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전유럽적인 현상인 일상어 사용 움직임에 참여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이미 1980년대에 선각자의 통찰력을 보여준 설터(Elizabeth Salter)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설터는 초서의 “국제주의”라고 설명했는데 초서 연구에 있어 민족국가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학자인 피어설(Derek Pearsall)의 좀 더 최근 진술을 통해 살펴보자.

14세기 후반 영어가 말이든 글이든 영국인 대다수의 언어로 자리 잡았을 때 예상과 달리 국가 정체성에 대한 선전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에 프랑스와 전쟁 중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다. 초서는 물론 작품을 쓸 때 영어를 선택해서 썼는데 그의 영향력과 본보기가 언어 사용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분명 크다. (...) 초서가 영어를 사용하기로 한 선택은 독립적인 국가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었고 영국을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이미 훌륭한

일상어를 가진 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었다. 영어는 초서에겐 유럽화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설터의 말처럼 “그의 영어  
사용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승리였다”

영국의 민족이나 인종의 역사이든 단일한 영토로서의 영국이든 국민성이든  
혹은 적대적인 민족적 타자와의 대립이든 무엇이든 이것이 초서에겐서 국가적  
감성이나 국가 정체성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내지는 전혀 본 적이 없다. (90)

2019년에 출간되어 각종 학술상을 수상했고 최초로 여성 학자가 집필해 더욱 화제를  
모은 전기 『초서 - 유럽인의 삶』 (*Chaucer: A European Life*)에서도 초서가 영어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저자인 터너(Marion Turner)는 설터의 주장을 따른다. 초서의 다  
중언어는 그의 ‘국제주의적’ 사고를 나타내는 “유럽화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최근 권  
위있는 전기에서 재천명된 것이다(129).

앞에서 본 것처럼 일상어가 민족국가주의적인 이념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최근의 연구는 그런 노선을 따르지 않는 것이 대세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  
아가 다중언어적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초서의 일상어를 재규정한 버터필드의 입장을  
검토해보자. 2009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친숙한 적 - 백년전쟁과 초서, 언어, 국  
가』 (*The Familiar Enemy: Chaucer, Language, and Nation in the Hundred Years  
War*)에서 저자는 단적으로 영어만이 영국의 당연한 일상어가 아니었고 그것을 대표  
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초서라고 주장한다. 앞서 피어설이 초서에겐서 민족 감  
정이라든지 국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빌-피터(Thorlac Turville-Petre)  
는 이것이 14세기 초에 프랑스어에 대항한 영어의 투쟁에 골몰했던 작가들과는 달리  
초서에겐은 이 투쟁이 이미 승리로 끝났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Turville-Petre,  
“Afterword” 340-2). 하지만 버터필드는 초서와 영국의 동시대인들은 프랑스어와 비  
교할 때 영어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소박한 지위의 일상어임을 확연하게 의  
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인식은 적어도 200년이 지나서까지 영국의 문화에 침투해  
있다고 반박한다(273-74). 초서에겐 맹목적인 언어적 우월주의 혹은 애국주의가 부재  
한 것은 영어의 국제성에 대한 편안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또 다른 일

상어인 프랑스어에 깊이 뿌리내리고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작가 초서에게는 영어가 프랑스어였고 프랑스어가 영어였는데 이것은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로 생각하고 글을 쓴 다수의 동시대 작가들에게 해당되는 현실이기도 했다. 따라서 초서의 영시를 포함해 ‘영어의 부상’ 시기에 꽃을 피운 중세영어 문학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 노르만 정복으로 몇백 년 단절되었다가 불안하게 이어진 전통이 아니라 영국의 풍요로운 라틴어 및 프랑스어 문학과 함께 자라난 기름진 토양의 문학의 일부로 봐야 한다 (Butterfield 317-19).

초서의 작품 근간에 깊이 뿌리내린 프랑스어를 영어와 동일한 일상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버터필드의 주장은 과급력이 큰데 일례로 당장 오래된 초서 연구의 대전제를 흔들어놓았다. 보통 작가로서 초서의 커리어를 세 시대로 나누는데 초기는 프랑스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프랑스 시기, 성숙기인 중기에는 단테와 보카치오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문학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서 이탈리아 시기, 그러다 마지막 절정기를 그의 대작 『캔터베리 이야기』 (*The Canterbury Tales*)를 쓴 영국 시기로 본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영어였고, 영어가 프랑스어였던 초서를 고려하면 이런 분류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 ‘영시의 아버지’ 초서를 더 이상 영국성을 대표하는 작가가 아닌 “유럽 대륙과 영국 양쪽에 속한, 영국해협을 가로지르는 작가로서 복수 언어의 텍스트와 국제적인 상상력”의 소유자라고 보는 이 논쟁적인 저술은 중세 영국의 다중언어 연구에서 고전으로 꼽힌다(Butterfield xxix).

### 3. 영국의 프랑스어 연구 동향 - 명칭과 사용 규모

지난 몇십년간 중세 영국 연구의 키워드로 다중언어가 부상한 데에는 영국에서 사용된 프랑스어와 더불어 프랑스어로 작성된 필사본 연구의 증가가 한몫했다. 영국의 프랑스어는 오랜 세월 영국에서는 영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일종의 ‘기형 프랑스어’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홀대받았다. 더더구나 14세기의 프랑스어는 이미 쇠



퇴한 것, 따라서 주변적인 탐구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다분히 근대 민족국가주의적인 편견이 작용한 결과이다(Collett and Fenster 2). 1937년 앵글로노르만 텍스트 협회(Anglo-Norman Text Society)가 설립된 후 주로 영미권의 몇몇 헌신적인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발굴된 986종의 앵글로노르만어 텍스트 전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붙은 『앵글로노르만어문학: 텍스트와 수서본 가이드』(*Anglo-Norman Literature: A Guide to Texts and Manuscripts*)는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 딘(Ruth Dean)이 수십년에 걸쳐 일군 작업을 바탕으로 볼턴(M. Boulton)과 함께 1999년에 발간한 것으로 가히 영국의 프랑스어 연구가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된 상징적인 사건이다.

영국의 다중언어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부족했거나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은 영국에서 사용된 프랑스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음을 진단하는 최근의 저술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 징후로 볼 수 있는 것이 영국에서 사용된 프랑스어의 명칭과 실제 사용 규모에 대해 학계의 폭넓은 정립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선 명칭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영국에서 사용된 프랑스어는 일반적으로 앵글로노르만어로 통용되지만 사실 이 호칭의 문제점은 일찌감치 제기되었다. ‘앵글로노르만’은 원래 언어보다는 정치와 지리적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이 용어가 기술하는 프랑스어 사용자들은 언어적으로 균일하지 않았다. 즉 그들 중에는 노르만 출신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신지가 빠르게 다양해졌다. 영국에서 출생해 단기간만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람뿐 아니라 아예 대륙의 프랑스인들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도 모두 포함되었다(Rothwell, “Anglo-French”).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로 앵글로노르만어의 역사를 두 시대로 분리해서 논의하는 관행이 생겼다(Pope 424). 12세기 말을 분기점으로 해 프랑스어가 중세적 의미의 모어이자 진정한 일상어로 존재했던 전기, 그리고 학습을 통해 사용 능력을 유지시켜야 했던 후기로 구분했던 것이다. 그러다 14세기 초까지 영국에서만 사용되던 프랑스어는 앵글로노르만어로,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입된 프랑스어는 앵글로프랑스어(Anglo-French)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로스웰(William

Rothwell)은 아예 앵글로프랑스어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Anglo-French”).

영문학자로서 중세 영국의 프랑스어 텍스트 연구를 선도해 온 위간-브라운은 2009년 자신이 편집자로 발간한 논문 선집 『중세 영국의 언어와 문화 - 영국의 프랑스어 1100-1500』 (*Language and Culture in Medieval Britain: The French of England 1100-1500*)의 서문에서 대안으로 ‘영국의 프랑스어’(French of England)를 제안한다 (“What’s In a Name?”). 프랑스어와 영국, 언뜻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연결시킨 이 호칭이야말로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400년 가까이 영국에서는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었고 그 언어들이 문학, 사회, 정치, 상업에서 서로 접촉하면서 얽히고 섞인 수많은 기록을 주목하게 한다. 이 표현은 중세 영국을 특징짓는 언어 이동과 교류의 역동성을 함축함과 동시에 ‘앵글로노르만어’라는 용어가 유발시키지 못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함축한다. 그런가 하면 한 개의 용어로 중세 영국의 프랑스어를 일괄 지칭하면서 ‘앵글로노르만어’와 ‘앵글로프랑스어’로 나누어 지칭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 즉 실재하지 않았던 단절을 암시하고 실제의 연속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문제도 해소하고자 한다. 영국의 프랑스어는 지역에 따라, 집단에 따라 부상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했다가 또 다른 집단과 다른 시대에 맞추어 재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역동적인 역사를 영국의 다중언어 현실의 맥락에서 일깨워주는 명칭이 ‘영국의 프랑스어’라는 것이다. 쟁점도 분명하고 대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최근까지도 영어 및 영문학 관련 연구물에서는 이런 논의에 따른 각성은 물론 논의 존재에 대한 언급도 없이 국내외에서 여전히 앵글로노르만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언어학, 문학, 역사학계에서 모두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11)</sup>

명칭은 문제가 제기되었어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영국에서 프랑스어 사용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실제로 인구의 어느 정도가 프랑스어를 했는가에 대한 학계의 답변은 20세기 초에는 “대부분이 사용했다”가 대세였다가 중반에는 “소수만 사용했다”로 돌아섰는데 최근에 와서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있는 언어로 일상처럼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초기에 앵글로노르만어를 분과

학문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14세기까지 줄곧 사용자가 최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까지 두루 포진해 중세 영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다(Suggett).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어는 중세 내내 최상위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였고 얼마 가지 않아 영어에 눌러 쇠퇴했다는 서사가 학계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Burndt; Short). 그러다 최근의 연구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 프랑스어가 15세기까지도 궁정뿐 아니라 시장과 거리, 법정, 학교에서 말로 사용되었고, 문자로는 더욱더 확대된 영역에서 상용되었음을 밝힌다. 프랑스어가 13세기까지만이 아니라 14세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영국의 언어였다는 근거를 속속 발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중세 후기에 급증한 프랑스어 교본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프랑스어가 탄생 언어인 경우는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13세기 헨리 3세 시대 이후부터 비베스워스(Walter de Bibbesworth)의 『트레티즈』(Tretiz)와 같은 교재가 등장해 귀족에게 실제로 필요한 어휘를 학습시켰다.<sup>12)</sup> 14세기와 15세기에는 이를 변용한 교재 뿐 아니라 프랑스어 문법책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프랑스어가 여전히 사회적 요구가 큰 언어였다는 것과 실제 사용자가 많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언어학자인 잉엄(Richard Ingham)의 연구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중세 후기 영국의 프랑스어가 프랑스어의 한 방언으로 살아서 진화하고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노르만 정복 때 유입된 언어가 화석화되어 통용성이 빈약해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변종이 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잉엄은 13세기 이후에 작성된 수많은 앵글로노르만어 텍스트에 대하여 형태통사론적 연구를 하며 L1 과 L2 학습자의 능력을 비교했다. 영국의 프랑스어가 대륙의 프랑스어와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세 후기 영국에서 프랑스어로 작성된 행정문서들을 보면 살아있는 통사구조, 즉 원어민 같은 문장구조 형성 능력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 그는 당대의 프랑스어 사용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프랑스어를 하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어릴 때부터 배워서 충분히 원어민의 역량으로 사용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다(Ingham, *The Transmission*). 원어민 같은 문장구조 형성 능

력은 14세기 중반 이후에나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간의 통념보다 1세기나 늦추어진 시기이다. 언어 변천의 차원에서 보면 앵글로노르만어는 14세기 중엽까지 대륙의 프랑스어와 동일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잉엄은 이를 바탕으로 앵글로노르만어가 프랑스어 전체의 유기적인 한 부분이었으며 따라서 같은 언어 변화를 거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변화한다는 것은 언어가 폭넓게 사용되는, 살아있다는 언어라는 증거이다. 또한 잉엄은 14세기 중반까지는 앵글로노르만어 기록에서 성 구분이 프랑스어와 동일하고 그 이후부터 문법적인 성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Ingham, "Maintenance"). 즉 그때까지도 원어민처럼 프랑스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영국의 프랑스어는 중세 후기까지도 소수의 귀족들에 의해서만 유지된 것이 아니었고, 외국어도 더더욱 아니었으며, 변하지 않고 고착된 인위적인 언어가 되지도 않았다(Ingham, "The Persistence" 44-45).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연구 결과는 워건-브라운 등이 모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계기가 된다 (Wogan-Browne, "Invisible Archives" 666-67) 비베스워스의 교재는 귀족 여성인 어머니가 자식에게 일찍부터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집필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의 돌봄 아래서 어릴 때부터 배운 언어를 굳이 모어와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세 영국의 다중언어에 관한 연구가 복잡한 이념적 논쟁의 쟁점이 되어 있는 모어의 정의에 기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어와 영어 간의 이중언어 사용이 최악의 고비를 맞은 것은 언어 간의 투쟁에 다른 승패 때문이 아니고 1350년경, 흑사병이 영국의 인구를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이다.(Ingham, *The Transmission* 159-162).

#### 4. 다중언어 영문학

지난 사반세기 동안 다중언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중세 영국의 문자 문화에 대한 연구는 중세영문학의 지형을 바꿀만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옥스포드 21세기 문

학 연구' 시리즈 중 『중기 영어』 (*Middle English*)가 2007년에 발간되었는데 30개의 주제 중 '다중언어'는 유일하게 두 번 등장한다(Strohm)<sup>13</sup> 중세영국문학 연구에서 이 주제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 중 하나라고 본다. 영어는 영국의 언어이고 프랑스어는 프랑스 언어라는 사고를 벗어나기 어려운 근대적 시각에서는 프랑스어도 영어와 함께 엄연한 영국의 언어였고, 중세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에게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동 일상어였다는 연구 결과는 대표적인 영어 작가 초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하기도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다중언어 텍스트의 작가들도 재평가하게 한다.<sup>14</sup> 초서 외에 중세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영어뿐 아니라 라틴어, 프랑스어 세 개 언어로 각각 작품을 남긴 가위(John Gower)가 있는가 하면 이 언어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코드 전환과 코드 혼합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농부 피어스』 (*Piers Plowman*)의 저자 랭런드(William Langland)가 있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19세기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어 1810년에 대표적인 영국 시인들의 작품 선집을 편집한 찰머스(Alexander Chalmers)는 초서와 가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비록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것이 시류였지만 초서는 자신의 뮤즈를 프랑스어의 구속에서 과감하게 해방시켰고 천재적으로 영국의 시와 취향과 상상력의 근간을 세웠다. 가위는 아마도 프랑스 및 라틴계 사람들과의 각별한 친밀감 때문에 쉽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갔다. (Echard 12, 재인용)

다중언어의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는 가위의 비영어 작품들이나 랭런드의 코드혼용 텍스트는 분류가 모호해 어쩔 수 없이 영문학 역사의 일부로만 취급되었다. 하지만 순수한 영어가 아닌 언어로 쓰인 작품은 “영국의 시와 취향과 상상력”으로 평가 받기 어려웠다. 이들은 대체로 영어로만 글을 쓴 (아니면 영어로만 썼다고 여겨진) 초서와 같은 작가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고 더 나아가 영문학을 대표한다기에는 다소 부족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도 한결 당당하게 영국의 작가로 초서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이 마련되었다.<sup>15</sup> 다중언어 영문학이 부상하면서 다중언어 영국성을 정의해야 하는 고민도 계속되고 있다.

## Notes

- 1) ‘Vernacular’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발턴 혹은 토착민의 언어, 민족의 정치·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어(mother-tongue), 집단 통용성을 가진 공동어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번역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중세 유럽 연구에서는 표준 라틴어에 대응하는 토착어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종종 ‘속어’로 번역했다. 하지만 위의 정의가 상호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영미권의 중세 연구자들이 이 어휘를 ‘속어’라는 의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이런 관행을 따라 본 논문에서는 ‘vernacular’를 ‘일상어’로 번역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의미를 함축한 용어로 사용한다. ‘일상어’의 일반적인 정의와 중세적 의미에 대한 간결한 정리는 Somerset et al. pp. ix-x 참조.
- 2) 일반적으로 14세기의 현상을 ‘영어의 부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알프레드 대왕이 대표 하는 고대영어 시대의 영어의 부상에 이어 두 번째라는 의미에서 ‘재부상’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후로는 편의상 ‘영어의 부상’이라고 하겠다.
- 3) 존스의 책 원제는 *The Triumph of the English Language*이고 카를의 책 원제는 *The Triumph of English 1350-1400*이다. ‘영어의 승리’ 서사 내용은 이 저서들과 함께 Baugh and Cable, Millward and Hayles, Pyles and Algeo를 주로 참고했다.
- 4) 근대 유럽에 등장한 “단일언어적 페르다임에 의해” 그전까지 유럽 전역에 만연했던 다중언어 현상을 보는 관점이 “굴절”되었다는 설명은 Yildiz 참조 (3-4).
- 5) 물론 라틴어 위세의 축소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14세기 후반 성서 번역과 롤라드의 움직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중언어 관점에서 영어 및 영문학과 라틴어의 관계에 대해 프랑스어와의 관계만큼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한 저술은 찾기 어렵다.
- 6) Cable and Baugh 149-150. 이 외에도 Cottle 17-18, Millward 147, Scattergood, 13, Coleman 82 참조.
- 7) 「영국의 법률에 대한 찬사」라는 제목의 이 라틴어 저술은 1468년에서 1471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률 논쟁에 관한 법령’이 반포된지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의 상황이다(Fortescue ix).
- 8) 중세 유럽을 특정한 기어리(Patrick Geary)는 국가와 언어 집단의 연관성을 상정하는 것이 19세기 국가주의의 바탕에서 수립된 관점임을 지적했고(29-34, 37-40), 암스트롱(J. Armstrong)은 거의 대부분의 중세 국가들은 언어 단위로 경계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킨다(241-72).

- 9) Rosalind Field의 “Romance in England,” S. Lindenbaum의 “London Texts and Literate Practice,” David Lawton의 “Englishing the Bible,” Nicholas Watson의 “English Mystics,” Glending Olson의 “Chaucer”에서 특히 이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 10) 이를 대표하는 인물은 물론 단테다. 그의 일상어론이라고 할 수 있는 *De Eloquentia de Vulgari*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중세 일상어의 의의에 대해서는 *The Idea of the Vernacular* 331-334 참조.
- 11) 국내에서는 노르만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술서든 대중서든 Anglo-Norman의 번역을 앵글로노르만어 대신 앵글로프랑스어 혹은 앵글로프렌치라고도 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관행이다.
- 12) Tretiz의 주된 내용은 귀족에게 필요한, 영지 관리에 관련된 어휘이다. 최근 영국의 프랑스어를 논하며 *Tretiz*를 언급하지 않는 연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난데 전반적인 특징과 영향력에 대한 개요는 Hinton 참조.
- 13) Robert Stein의 “Multilingualism”과 Christopher Baswell의 “Multilingualism on the Page”가 있다. 이 외에도 Michelle Warren이 “Translation”에서 중세 번역을 다중언어 현상으로 설정한다.
- 14) Cannon은 2015년에 발간된 중세 후기 영국의 프랑스어에 대한 *Speculum* 특집호에서 라틴어도 영국에서 일상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Cannon).
- 15) 가위를 비롯해 다양한 중세 작가들의 다중언어를 일찍이 90년 대부터 연구해 온 학자도 매우 소수지만 있었는데 Machan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 인 용 문 헌

- Ailes, Maianne and Ad Putter. "The French of Medieval England." *European Francophonie: Th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History of an International Prestige Language*, edited by V. Rjeroutski, G. Argent and D. Offord, Peter Lang, 2014, pp. 51-80.
- Armstrong, John. *Nations before Nationalism*. U of North Carolina P, 2011.
- Babington, C. and J. R. Lumby, editors. *Polychronicon Ranulphi Higden monachi Cestrensis*. Longman, Green, Longman, Roberts, and Green, 1865-86.
- Baugh, A. C. and T. Cable.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Routledge, 2013.
- Basswell, Christopher. "Multilingualism on the Page." *Middle English*, edited by P. Strohm, Oxford UP, 2007, pp. 23-37.
- Burndt, R. "The Period of the Final Decline of French in Medieval England (Fourteenth and Early Fifteenth Centuries)." *Zeitschrift fur Anglistik und Amerikanistik*, vol. 20, 1972, pp. 341-69.
- Butterfield, Ardis. *The Familiar Enemy: Chaucer, Language, and Nation in the Hundred Years War*. Oxford UP, 2009.
- Cannon, Chrisopher. "Vernacular Latin." *Speculum*, vol. 90, no. 3, 2015, pp. 641-53.
- Collett, Carolyn and Thelma Fenster. "Introduction: Recognizing the French of Medieval England." *The French of Medieval England: Essays in Honor of Jocelyn Wogan-Browne*, edited by Thelma Fenster and Carolyn P. Collett, D. S. Brewer, 2017, pp. 1-11.
- Colman, Janet. *Medieval Readers and Writers: English Literature in History 1350-1400*. Hutchinson, 1981.
- Cottle, Basil. *The Triumph of English, 1350-1400*. Blanford, 1969.
- Crane, Susan. "Anglo-Norman Cultures in England, 1066-1460." *The Cambridge*



- History of Medieval English Literature*, Cambridge UP, 2008, pp. 35-60.
- Dean, Ruth J., and Maureen B. M. Boulton. *Anglo-Norman Literature: A Guide to Texts and Manuscripts*. Anglo-Norman Text Society, 1999.
- Echard, Sian. *A Companion to Gower*. D. S. Brewer, 2004.
- Fortescue, John. *De Laudibus Legum Anglie*. Edited and translated by S. B. Chrimes, Cambridge UP, 1942.
- Galbraith, V. H. "Nationality and Language."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 23, 1941, pp. 113-28
- Geary, Peter. *The Myth of Nations: The Medieval Origins of Europe*. Princeton, 2002.
- Hinton, Thomas. "Anglo-French in the Thirteenth Century: A Reappraisal of Walter de Bibbesworth's *Tretiz*." *Modern Language Review*, vol 12, 2017, pp. 855-81.
- Ingham, Richard. *The Transmission of Anglo-Norman: Language History and Language Acquisition*. John Benjamins Publishing, 2012.
- \_\_\_\_\_. "The Persistence of Anglo-Norman 1230-1362: A Linguistic Perspective." *Language and Culture in Medieval Britain: The French of England 1100-1500*, edited by Jocelyn Wogan-Browne et al., 2009, pp. 44-53.
- \_\_\_\_\_. "The Maintenance of French in Later Medieval England."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vol. 115, 2015, pp. 623-45.
- Jones, Richard F. *The Triumph of the English Language*. Oxford UP, 1953.
- Machan, Tim William. *English in the Middle Ages*. Oxford UP, 2003.
- Millward, C. M., and M. Hayes. *A Biography of the English Language*.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2.
- Orme, N. *Medieval Schools: From Roman Britain to Renaissance England*. Yale UP, 2006.
- Ormrod, Mark. "The Use of English: Language, Law, and Political Culture in

- Fourteenth-Century England.” *Speculum*, vol. 78, 2003, pp. 750-87.
- Patterson, Lee. “On the Margin: Postmodernism, Ironic History, and Medieval Studies.” *Speculum*, vol. 65, no. 1, 1990, pp. 87-108.
- Pearsall, Derek. “Chaucer and Englishness.”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vol. 101, 1998, pp. 77-99.
- Pope, M. *From Latin to Modern French with Especial Consideration of Anglo-Norman*. Manchester UP, 1924.
- Pyles, T., and J. Algeo.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Harcourt Brace and Co., 1993.
- Rothwell, W. “English and French in England after 1362.” *English Studies*, vol. 82, 2001, pp. 539-59.
- \_\_\_\_\_. “Anglo-French and the Anglo-Norman Dictionary.” *Anglo-Norman Dictionary*, 2016, <https://anglo-norman.net/anglo-french>. Accessed 12 October 2022.
- Ruddick, A. *English Identity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Fourteenth Century*. Cambridge UP, 2013.
- Salter, Elizabeth. “Chaucer and Internationalism.”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vol. 2, 1980, pp. 71-79.
- Scattergood, V. J. *Politics and Poetry in the Fifteenth Century*. Blandford, 1971.
- Somerset, Fiona, and N. Watson. “On ‘Vernacular.’” *The Vulgar Tongue: Medieval and Postmedieval Vernacularity*, edited by Fiona Somerset and Nicholas Watson, Penn State UP, 2003, pp. ix-xiii.
- Stanbury, Sarah. “Vernacular Nostalgia and *The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English Literature*.”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vol. 44, no. 1, 2002, pp. 92-107.
- Stein, R. M. “Multilingualism.” *Middle English*, edited by P. Strohm, Oxford UP,

- 2007, pp. 23-37.
- Strohm, Paul. *Middle English*. Oxford UP, 2007.
- Suggett, H. "The Use of French in England in the Later Middle Ages." *Transactions of the Royal Historical Society*, vol. 28, 1946, pp. 61-83.
- Tiersma, Peter. *Legal Language*. U of Chicago P, 1999.
- Turner, Marion. *Chaucer: A European Life*. Princeton UP, 2019.
- Turville-Petre, T. "Afterword: The Brutus Prologue to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Imagining a Medieval English Nation*, edited by K. Lavezzo, Minnesota UP, 2004, pp. 340-42.
- \_\_\_\_\_. *England the Nation: Language, Literature, and National Identity, 1290-1340*. Oxford UP, 1996.
- Wallace, David, editor. *The Cambridge History of Medieval English Literature*. Cambridge UP, 1999.
- Wogan-Browne, Jocelyn. "What's in a Name: The 'French' of 'England'." *Language and Culture in Medieval Britain: The French of England 1100-1500*, edited by Jocelyn Wogan-Browne et al., Boydell and Brewer, 2009, pp. 1-13.
- \_\_\_\_\_. "Invisible Archives?: Later Medieval French in England." *Speculum*, vol. 90, no. 3, 2015, pp. 653-73.
- Wogan-Browne, Jocelyn, et al., editors. *The Idea of the Vernacular: An Anthology of Middle English Literary Theory 1280-1520*. Penn State UP, 1999.
- Yildiz, Yasemin. *Beyond the Mother Tongue: The Post Monolingual Condition*. Fordham UP, 2013.

## Abstract

# Languages in Late Medieval England: The Discourse of the Rise of English and the Decline of French

Ji-Soo Kang  
Inha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urvey an important aspect of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trends in medieval English scholarship upon entering the 21st century. It has come to our attention that the polyglot nature of the linguistic landscape in medieval England should not be understood merely as the co-existence of two or more languages but as truly multilingual actualities. Because of the dominance of the teleological discourse of the "triumph of English" in modern historical writings on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narratives of the celebrated rise of English in late medieval England have often been accompanied by a narrative of the decline of French. This essay shows instances in which this master narrative is dismantled and also critically introduces works that have productively engaged in the various ramifications of multilingualism as it becomes the keyword in approaching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and their literary cultures in the age of Chaucer.

**Key Words:** medieval English multilingualism, Englishness, French of England, rise of English, triumph of English

논문접수일: 2023.02.02

심사완료일: 2023.02.22

게재확정일: 2023.02.22

이름: 강지수

소속: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메일: jskang@inha.ac.kr

